

---

우리 브랜드를 남다르게 정의해보고 싶어요.

에이스침대는 진부한 사례 같지만, 여전히 곱씹어볼 가치가 있어.

예전에는 보통 가구를 장만할 때 장롱, 화장대, 침대 등을 세트론 사곤 했거든. 그런데 우리 인생의 3분의 1을 침구에서 지내. 그 잠자리는 굉장히 편안해야겠지. 그래서 에이스는 침대를 살 때 가구의 일부분으로 판단하면 안 되고, 과학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했어. 기가 막힌 발상이었지. 덕분에 ‘침대는 과학’이라는 에이스의 슬로건은 세대를 넘어 지금까지도 사람들의 입에 회자되고 있잖아.

이런 슬로건을 접하면 통찰력이 대단하다고 감탄하게 되는데, 노자의 말씀 중에 ‘반자도지동(反者道之動)’이 있어. 우리 대화의 맥락으로 풀어보면 ‘사람들이 별생각 없이 갖는 고착개념의 반대(反)로 가는 것(者)이 도(道)의(之) 운동(動) 방식’이라는 뜻이야.

도(道)라는 것은 세상의 진리고 정답인데, 정답이라는 것을 잘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진 고착개념의 반대로 가는 길이라는 거지. 이렇게 생각지 못한 반전이 있는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통찰력 있다고 하더라. 자네 브랜드에도 그런 통찰을 담고 싶다는 거잖아.

이때 염두에 둘 게 있어. 으레 기존의 고착개념과 반대되는 생각을 찾으려고만 하는데, 무조건 거꾸로 갈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방향을 찾아가야 해. 앞에서 왜(innocent why) 사람들이 우리의 제품을 원하는지에 대해 어린아이처럼 천진한 마음으로 질문해보라고 한 것도 그래서야. 그 이유를 깊게 고민해야만 통찰력 있는 본질에 다가갈 수 있거든.